

제2회 한국섬포럼 2022. 8. 11. / 군산 GSCO
: 지방소멸시대,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전략

한국 섬 지역의 인구
전망과 대응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이제연 기획조정연구실장

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, 3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에 이를 것이라 예측됩니다. 2016년 6월 말 인구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약 50년 후인 2066년까지의 인구를 전망했을 때 섬 지역 인구의 소멸은 시급한 문제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융복합산업을 육성해 주민의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. 원격 교육·의료,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. 자연환경보전과 지역특성의 자원화로 주민 주도형 관광자원 개발과 운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. 접근성의 향상으로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일부 보장해, 섬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.

중국의 섬 현황과
발전 정책

중국과학원
천안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

중국은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총 7,372개의 섬 중에서 상주인구가 있는 섬만 460개 이상으로 섬 인구는 약 4,000만 명입니다. 중국은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막대한 경제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, 선진국에 비해 해양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습니다. 섬은 국가 권익 수호, 생태 및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지닙니다. 이러한 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.

먼저 하이난 섬의 경우 2025년까지 무역·투자의 자유화·편리화와 각종 자원의 신속, 고효율,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섬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운영하려 합니다. 저우산군도(舟山) 신구는 전통 해양산업의 개선, 해양 전략 신흥사업을 육성하여 해양 신에너지를 특색으로 하는 현대 해양산업기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중국 중앙정부는 섬 관리 및 개발을 위한 「중화인민공화국 해도 보호법」, 「중국 해도 보호 계획」, 「국가급 해양목장 시범구 건설계획(2017년-2025년)」 등 섬 경제 발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. 각 지역이 상기 정책을 참고하여 발전계획을 제정해 섬 자원환경의 수용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, 사람과 자연이 조화 및 공존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.

제2회 한국섬포럼



주민은 살고 싶고,
국민은 가고 싶고,
미래세대에도
지속가능한 섬

전라남도
최정기 해양수산국장

도서 인문연구 40년,
성과와 패러다임 전환

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
홍선기 교수

제3회 한국섬포럼 2022. 10. 6. / 전남도청
: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, 현재와 미래

‘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’에서 지정한 개발대상도서는 371개로 시도별로 전남에 58%, 경남 17%, 인천 8.6%로 분포되어 있습니다. 전남은 2015년 브랜드 시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‘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’을 시작했습니다. 또한 해상교통 지원정책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와, 일반인 대상의 사업을 통해 접근성 향상에 앞장섰습니다. 2026년 세계 최초로 섬 보유 국가가 모여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,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‘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’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는 민관 거버넌스 역할과 현장지원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해, 가고 싶은 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섬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도서문화연구원은 도서·해양의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며, 서남해 뿐 아니라 전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학술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40여 년간 도서문화연구원은 지역 연계 노력을 성과로, 섬의 인문학- 문명사적 공간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장섰습니다. 고착화된 육지 중심적 정형을 섬을 통해서 성찰하고 바다를 지향하는 삶과 사고의 새로운 인문학을 제안했습니다.

섬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.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어장의 변화, 연륙 연도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, 외래종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섬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며, 관광개발에 의해 섬 고유문화 또한 퇴색되고 있습니다.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됨과 동시에 생태와, 생물 문화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가동되어야 합니다.

제3회 한국섬포럼

